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 당진시, 수원시, 안동시 사례를 중심으로 -

Formul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Building a Lifelong Learning Community

- The Cases from the Municipal Cities of Dangjin, Suwon and Andong -

김 민 지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 주저자)
임 은 옥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Minji Kim / Eunok Im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municipal policy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facilitates the formulation of social capital in the region. To this end, we study the cases from the South Korean municipal cities of Dangjin, Suwon, and Andong to analyze the goal and implementation of their lifelong learning programs. As a result, three distinct foci of local lifelong learning programs are identified and matched against the cities: Dangjin with local community revitalization, Suwon with neighborhood community establishment, and Andong with learning partnership. Despite the distinction, all the types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some common types of social capital such as social values sharing, personal network in a region, and network among other communities.

Keywords: Lifelong learning, Lifelong learning community, Learning region, Learning community, Social capital

I. 문제 제기

흔히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칭하고 이를 증명하듯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연결망 속에서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며 신뢰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운영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파편화되고 한국의 도시 문화는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성질을 띠게 되었다. 사회가 파편화되었다는 것은 즉 공동체가 해체되고 가족의 형태 또한 이전의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더 나아가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축소되었다는 뜻이다. 통계청(2017)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2%에 달했다. 이렇게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 사회의 사회적인 연결 또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연결을 강화시키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신뢰, 네트워크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역 내에 학습공동체형성을 통해 시민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평생교육정책의 일종이다. 평생교육정책으로 학점은행제, K-MOOC, 평생학습도시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들 중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학습도시 운영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평생교육정책으로서 평생학습도시는 기존의 교육 제도 및 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게 하여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달성하고자 한다(이창기·고영상·박경호, 2010). 즉,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학습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과 참여 의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은 시·군·구에 평생교육 관련 조직,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6).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 처음 3개 도시로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3월 기준으로 현재 167개(전체 기초자치단체의 73.9%)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평생교육을 매개로 지역 스스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역의 학습공동체 내의 주민들 간의 혹은 타 지역 학습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즉, 평생학습도시 내의 학습공동체는 주민들 간의 가치 공유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지역인적 자원의 관리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평생학습도시 사례에서 어떤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을 유형화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지,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면 어떤 유형의 평생학습도시에서 어떤 종류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당진시, 수원시, 그리고 안동시의 평생학습도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정부 및 지자체의 정기간행물과 보고서, 평생학습도시 기관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정보 등의 문헌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I장은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며,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을 유형화하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틀로 제시한다. 다음 III장은 세 가지 평생학습도시의 사례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유형과 사회적 자본 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요약·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평생학습도시의 개념 및 특성

평생교육이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1967년 유네스코(UNESCO)의 성인교육위원회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기조 논문을 발표한 Lengrand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1970년 '세계교육의 해' 기본이념으로 평생교육을 제창하게 되면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확산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평생교육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평생교육법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평생교육을 정의하고 있다(평생교육법 §2①). 이러한 평생교육 이념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가진 관점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강제된 교육'의 개념에서 '주체적 학습'의 개념으로, 그 주체가 '교육하는 측'에서 '학습하는 측'이라는 방향으로 관점이 변화하게 된다. 강제성을 띤 활동에서 주체적 참여 활동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평생교육'을 '평생학습'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학습도시(learning city),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평생학습마을(lifelong learning region/town)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며,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먼저, 한국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도시를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 운동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이러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의는 시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지역학습공동체로서의 학

습도시를 강조하고 있다.

Yarnit(2000:11)는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를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적 결속, 재생 및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로 정의한다. 또한 Longworth(1999)는 평생학습도시를 지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의 성장과 사회통합 및 번영을 촉진하도록 시민 모두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도시로 정의한다. 즉, 평생학습도시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 인정하고 지역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시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김남선·안현숙, 2006).

또한 한숭희(2003)는 학습도시를 시민의 학습활동과 도시 활성화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습사회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차원에서 학습도시를 개념화한다. 첫째, 시민의 공식적인 교육 수준을 높이는 학습된 도시(educated city), 둘째, 현재 시민들이 활발히 학습하고 있는 도시(learning city), 셋째, 시민들 간의 학습네트워크(learning network)가 형성되는 도시, 넷째, 학습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의미한다(한숭희, 2003;김종두, 2011).

이렇게 다양한 개념적 정의로 인해 학습도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부족하여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에서는 전 세계 학습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학습도시를 정의하였다. UIL에 따르면 학습도시란, 도시의 총제적인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①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포용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②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학습을 재활성화하며, ③ 구직을 위한 학습과 직장 내의 학습을 촉진하고, ④ 최신의 학습기술을 폭넓게 활용하고, ⑤ 학습의 질과 수월성을 향상시키며, ⑥ 전 생애에 걸친 학습문화를 촉진시키는 도시이다. 이러한 학습도시는 개인의 역량 증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회적 결속, 경제 및 문화적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UIL은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으로서 정치적 의지 및 헌신, 거버넌스 형성과 거버넌스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자원의 동원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요건이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첫째, 정치적 의지와 헌신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고 도시를 학습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시해야 하고, 평생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적이고 참여적인 전략을 개발 및 실행하고, 학습도시로의 진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둘째, 거버넌스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민간 부문을 포함하는 부문 간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도시 건설에 고유한 공헌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평생 학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학습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빈민층 기금 모금 정책을 채택하고 불우한 집단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시민과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재능·기술·지식·경험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다른 도시 간의 아이디어와 경험 및 모범 사례 교환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5)

2. 평생학습도시의 구성요소 및 유형

평생학습도시는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김종두, 2011). 학습공동체는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을 연계시켜 사회통합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즉, 앞서 검토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도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학습도시는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를 통해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총제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으로 이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자아실현,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평생교육진흥원, 2010; 홍성우·김종래, 2013).

카케가와시의 평생학습도시 시스템을 분석한 양흥권(2005)은 평생학습도시시스템의 구성요소로 리더십, 파트너십, 네트워크, 학습시설정비, 학습참여촉진, 학습지원, 행·재정지원, 공동체 형성, 주민자치촉진 등의 11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이들의 고유한 기능과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표 1〉 참고). 그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학습도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하위 요소들은 전체 시스템 내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지만, 한 요소가 형성되면 다른 요소의 투입에 영향을 주면서 전체 학습도시시스템을 형성하도록 모든 구성요소들은 긴밀하게 상호연계된다(양흥권, 2005).

〈표 1〉 평생학습도시의 구성요소와 요소별 기능

구성요소	기능
리더십	사업비전 제시, 사업기획, 홍보, 사업추진력 제공, 참여주체 조정
파트너십	사업협력관계 형성, 조직·단체 참여 유도, 주민참여와 자원봉사 유도
네트워크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과 활용
학습시설정비	학습공간 제공, 타 구성요소 형성 기반 제공
학습참여촉진	주민참여 촉진, 홍보, 공동체 형성지원,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학습지원	학습서비스의 질 향상, 학습프로그램 개발, 타 구성요소 형성
행·재정적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재원조달, 타 구성요소 형성 지원
공동체 형성	타 구성요소 투입의 결과물, 타 구성요소 형성 지원
주민자치촉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유도, 학습과 주민자치의 연계 형성, 사업추진체제 형성

자료: 양흥권(2005:83); 김종두(2011:225)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나타나는 평생학습도시의 형태 또한 다양하

다. Yarnit(2000)은 이를 네 가지의 유형으로 범주화시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Yarnit(2000)은 평생학습도시를 '경제발전 중심형'과 '시민사회 중심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두 종류로 세분화하였다. 경제발전 중심형은 산업혁신형과 학습파트너형으로 나뉘는데 산업혁신형은 지역의 기업체에서 주도하는 형태로, 산업단지 및 산업복합단지를 형성하여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파트너형은 주민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 제공자와 학습자 사이의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협력을 증진하고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사회 중심형은 지역사회 재생형과 이웃공동체 형성형으로 나뉘는데 지역사회 재생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재생전략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웃공동체 형성형은 다양한 학습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시민정신을 고취시켜 이웃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2〉 Yarnit의 평생학습도시 유형

유형		개념 및 목적
경제 발전 중심	산업혁신형	기업체가 주도하는 학습운동 산업단지 및 산업 복합단지에서의 혁신 증진
	학습파트너형	교육훈련 제공자와 학습자를 위한 학습형태 지역사회 내에 학습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제공자와 학습자 간의 협력증진과 시민의 학습 참여 활성화
시민 사회 중심	지역사회 재생형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역할 및 정체성 탐색을 위해 시·군·구 범위에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지역 재생 도모
	이웃공동체 형성형	적극적인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새로운 이웃공동체 형성, 이웃을 위한 다양한 학습 방법(형식적, 비형식적, 성찰적 학습)을 활용한 시민교육형

자료: Yarnit(2000:80)

본 연구는 Yarnit(2000)의 유형을 참고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평생학습도시 유형을 학습파트너형, 지역사회 재생형, 그리고 이웃공동체 형성형으로 재분류 한다. 한국에서 평생학습을 이끌어가는 평생학습관은 2017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88%가 국가 혹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업체 주도의 학습 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발전중심의 산업혁신형 학습도시는 제외한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평생학습도시의 유형과 각 유형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평생학습도시 유형 및 유형별 특성

유형	특징
학습파트너형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교육 혹은 직업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는 유형
지역사회 재생형	도시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는 유형
이웃공동체 형성형	교육 과정을 통한 이웃 간의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유형

3.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인적·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980년대 이후에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신뢰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신뢰와 규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Putnam(1995)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들 간의 연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신뢰, 상호호혜 규범 등과 같은 일체의 무형자산을 말한다. Fukuyama(1995)는 콜먼과 유사한 관점으로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창출하는 비공식적인 규칙 또는 공유의 규범"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유되는 가치에 상호호혜성이 있어야 사회적 자본이 창출된다(원종욱, 2012). 즉, 사회적 자본은 여타 자본과 달리 구성원 간의 사회관계의 구조 속에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며, 그룹 구성원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이동원·정갑영 외, 2009)

Woolcock(1998)은 사회적 자본을 조직 간, 집단 간, 공동체 간, 국가 간 연계 구조의 산물로 보며, 모든 형태의 교환관계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연계 구조 속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표출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 이상의 단위가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집단적 응집력, 신뢰, 제재 등이 배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한상일, 2004). 그리고 자율적 관계 관점에서 보는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스스로 직간접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행위자와 연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자원을 말한다. 즉 개인이 스스로 문화와 유대관계, 연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상일(2004)은 자율성과 배태성의 용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같은 논리를 Adler & Kwon(2002)이 외부적 영역과 내부적 영역으로 구분한 관점을 활용한다. 외부적 자본론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보는 관점이고, 내부적 자본론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가 발휘하는 자율성에 의해 형성되는 결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에는 유대관계에 근거한 공동체 의식, 신뢰의 문화, 가치 공유, 제재 문화 등이 있으며, 연계관계에 근거한 정치적 연계, 타공동체와 연계 등이 속한다. 반면, 후자에는 유대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협력, 조언, 이웃과 친밀성과 연계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면식, 개인적 연계 등이 있다(한상일, 2004).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소로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수병·강창민·양덕순, 2015).

지금까지 논의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가치의 공유', '개인적 연계', '타 공동체와의 연계'로 구분한다. 아래 〈표 4〉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적 자본의 유형 및 유형별 특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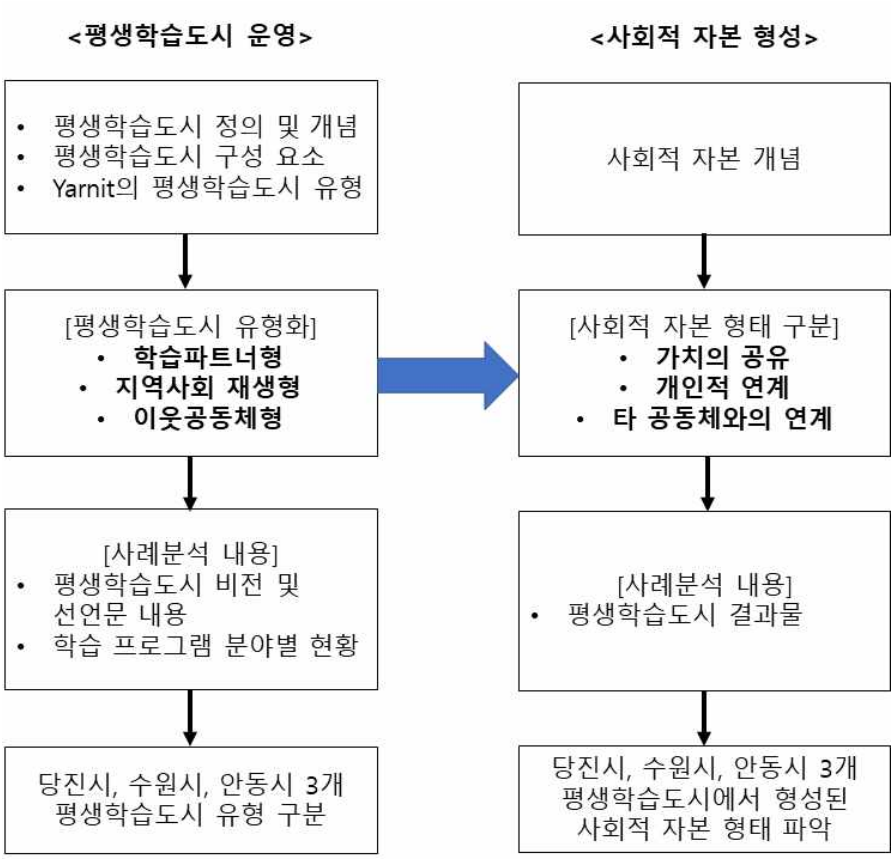
〈표 4〉 사회적 자본의 유형

유형	정의
가치의 공유	물질적·정신적 가치를 타인과 나누는 것
개인적 연계	정기적인 타인과의 교류
타 공동체와의 연계	정기적인 타 지역의 집단과의 교류

추상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인 유대 관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분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단, 가치의 공유는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축제, 행사 등과 평생학습도시에서 발행하는 웹진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분석에 포함하기로 한다. 연계 관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분류는 간소화하여 개인적 연계와 타 공동체와의 연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4. 연구 분석틀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먼저, 평생학습도시의 정의 및 개념, 구성요소, 목적 등을 기준으로 평생학습도시를 '학습파트너형', '지역사회 재생형', 그리고 '이웃공동체형'으로 구분하였다. 당진시, 수원시, 안동시 3개 평생학습도시가 어떤 유형에 속하지는를 파악하기 위해 각 도시의 비전 및 선언문 내용을 살펴볼 것이며, 더불어 현재 운영중인 학습 프로그램의 영역별 비중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가치의 공유', '개인적 연계', '타 공동체와의 연계'로 구분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도시의 결과물로서 위의 3가지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는지를 탐색하고, 형성되었다면 평생학습도시의 유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및 분석틀

Ⅲ. 평생학습도시 사례 분석

1. 사례 선정 근거 및 학습 프로그램 현황

본 연구의 분석은 2017년 통계 기준으로 153개에 달하는 평생학습도시 중에서도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 당진시, 수원시, 안동시를 대상으로 한다. 당진시는 2018년에 37개국 485개 회원도시가 참가하는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행사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에서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로서 소개된 경험이 있는 도시이다(「충남방송」, 2018). 또한 수원시는 2017년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 가입된 전 세계의 도시 중에서 학습도시 운영상의 성과를 보여준 도시에 수여하는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수상하였다(「연합뉴스」, 2017). 안동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었으며 2011년 IAEC 가입 승인을 받았고, 2019년에는 GNLC 가입도시로 최종 선정된 도시이다(「낙동뉴스」,

2019).

각 도시마다 고유한 기준을 가지고 학습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류하여 운영하는데,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각 도시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기초·직업교육', '문화예술', '인문교양'의 교육영역을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한다.[1] 2019년 현재 당진시는 전체 522개 평생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예술 영역(5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수원시는 총 12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인문교양(51%)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안동시는 운영 중인 총 43개 프로그램 중에서 기초·직업교육(6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평생학습도시의 비전 혹은 선언문의 내용과 현재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영역별 비율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평생학습도시 유형을 구분한다. 앞서 제시한 학습파트너형, 지역사회 재생형, 이웃공동체 형성형 세 가지 유형의 특징 모두를 포함하는 평생학습도시가 있더라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춰 해당 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기로 한다. 또한, 각 평생학습도시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대표적인 사업 한 가지를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되는지, 형성된다면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표 5〉 연구 대상지별 학습 프로그램 현황[2]

	당진시[3]		수원시		안동시[4]	
	프로그램 수	비율 (%)	프로그램 수	비율 (%)	프로그램 수	비율 (%)
기초교육 직업교육	72	14	13	10	27	63
문화예술	277	53	50	39	16	37
인문교양	173	33	64	51		
계	522	100	127	100	43	100

2. 지역사회 재생형: 당진시

당진시는 664.1㎢의 면적에 약 167,000여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1031개의 기업이 소재

1) 기초·직업교육은 다문화가정 또는 문맹 인구를 위한 한글 교육에서부터 취업 활동에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자격증 교육까지 포괄한다. 문화예술은 미술·음악·체육·공예 등 일반적으로 취미활동이라 분류할 수 있는 교육이고 인문교양은 인문학 강좌, 명사 특강 등의 교육이다.

2) 논문 작성 시점(2019년 5월 기준)에서 운영 중이거나 수강생 모집 중인 강좌를 집계하였다.

3) 당진시는 같은 내용의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평생학습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타 지역보다 많은 수로 집계되었다.

4) 안동시는 학습 프로그램의 분류를 취미/교양, 취업지원, 기술자격증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이를 본 연구에 맞춰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취미/교양은 문화예술과 인문교양을 통합한 형태로 집계하였고 취업지원과 기술자격증을 통합하여 기초·직업교육으로 집계하였다.

하고 있으며 전국 쌀 생산량 1위인 도농복합 도시이다. 이러한 당진시의 평생학습도시는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당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균형적인 평생학습 기반 확충,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소외계층 평생학습 참여 확대,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사업목표로 삼아 운영하고 있다. 당진시는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에서 "당진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시와 시민이 평생토록 성장·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시민들이 맞춤식 학습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학습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동기를 유발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한 삶을 위해, 문학적 향기와 여유를 만끽하는 삶을 위해, 희망과 품격을 누리는 삶을 위해 진실로 필요한 일이라 여기며 당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다."(당진시 평생학습포털, 2019)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진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풍요와 여유를 제공하는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인문교양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그 장소와 시간이 다양하여 타 도시에 비해 많은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당진시 평생학습도시의 유형을 지역사회 재생형으로 분류하였다.

당진시의 평생학습기관은 총 51개로 당진시 내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는 매년 학습문화운동인 당진시평생학습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의지를 고취 있으며,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와 같이 다른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당진시에서는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10명 내외의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학습과 토론을 하는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는데, 당진시 평생학습포털에 따르면 1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다.

당진시의 우수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가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특성화 평생학습으로서 마을 전통 풍습 체험, 1박2일 캠프(향교, 마을 유적 탐방 등)를 통한 지역특성화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5] 지속 가능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도시재생대학과 안전문화대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마을계획 및 마을 특성화 프로젝트를 결정한다.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을 사업의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2019).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당진시의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당진시평생학습한마당 등의 축제를 통한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학습동아리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의 주민총회를 통한 개인적 연계가 이

---

5) 인성교육으로는 음악과 함께 인성교육, 마을 교사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이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스피치, 리더십 교육 등이 있다.

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 여러 지역이 참가하는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 타 공동체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이웃공동체 형성형: 수원시

수원시는 121㎢의 면적에 약 1,221,000여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작은 하천 주변에 평야가 발달하여 과거 농업이 활발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공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도권의 주요 공업 중심지로 부상한 도시이다. 또한 수원시는 조선 왕조의 역사가 깃들어있는 역사도시로, 문화유적이 많고 주변의 자연 경관도 훌륭하여 관광 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다. 이러한 수원시의 평생학습도시는 '당당한 삶을 지원하는 배움과 실천의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적 혁신적 프로그램 개발, 스스로 더불어 배우는 주체적 학습, 깨어있는 삶을 향한 시민교육, 자율과 상호작용의 학습장을 전략 목표로 삼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사회, 평생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배운 것을 이웃과 나누어 함께 성장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의 도시 수원'"으로 선언하고 있다(수원시 평생학습관, 2019). 이에 따르면 수원시는 평생학습도시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원시 평생학습도시를 이웃공동체 형성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수원시의 평생학습기관은 총 113개이며,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나누고 소통하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웹진 〈와〉를 발행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진행 중이며, 수원시 평생학습포털에 따르면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528개에 이르고 있다.

수원시의 우수 사업으로는 '뭐라도 학교'가 있다(수원시 평생학습관, 2019). "뭐라도 배우고, 나누고, 즐기고, 행하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뭐라도 학교' 사업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문제의 당사자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는 전략으로써 시행하게 되었다.[6] '뭐라도 학교'는 시니어들이 자신과 세대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로 연결되어 버팀목이 되는 시니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교류하고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시니어 학습 플랫폼으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시니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시니어를 사회적 짐에서 사회적 힘으로 바꾸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뭐라도 학교'의 주요 내용은 학습 아카데미, 사업단 동아리, 우리들 교실이 있다. 학습 아카데미는 시니어들의 능력을 훈련하고 교류하는 과정이고, 사업단 동아리는 회원들이 스스로의 필요와 관심사에 따라 함께 활동할 회원을 모집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사회공헌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통해

---

6)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로는 은퇴 이후 시니어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30~40년가량으로 증가,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자식세대와 경쟁, 시니어 삶의 양극화 등이 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뭐라도 학교' 회원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우리들 교실'이라는 강좌도 운영한다(수원시 평생학습관, 2016).

이를 종합하면 수원시의 평생학습도시 역시 가치의 공유, 개인적 연계, 타 공동체와의 연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등의 축제 참가와 웹진 〈와〉를 통하여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동아리와 '뭐라도 학교'사업의 사업단 동아리, 우리들 교실을 통해 개인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전국적 규모의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함으로써 타공동체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학습파트너형: 안동시

안동시는 1,522㎢의 면적에 약 163,000여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각 시대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자 민족정신문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전통문화의 도시이다. 안동시의 평생학습도시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서,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전 생애에 걸쳐 배움을 실천하는, 자연과 인간, 문화가 함께하는 살기 좋은 학습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동시 평생학습도시는 선언문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배우고 가르치며 마을마다 직장마다 학습동아리가 살아 숨 쉬도록 가정에서 서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간다."로 선언하고 있다(안동시 평생학습원, 2019). 또한 연구 대상지별 학습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면 안동시는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총 프로그램 수의 67%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안동시 평생학습도시는 시민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파트너형으로 분류한다.

안동시의 평생학습기관은 총 114개이며, 100여 개의 기관 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행복안동 평생학습 복지 어울림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 역시 당진시나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안동시 평생학습포털에 따르면 14개의 학습동아리가 등록되어 있다.

안동시의 우수 사업으로는 '길거리 교실'이 있다(안동시 평생학습원, 2019). 이 사업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로서 지역 내에 새로운 학습 공간 발굴을 통하여 근거리 학습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길거리 교실'은 카페, 식당, 빵집 등 시민 소유의 사업장을 학습 공간으로써 제공받아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며 5인 이상의 시민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한 후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2019).

이를 종합하면 안동시의 평생학습도시 역시 세 가지 종류의 사회적 자본이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행복안동 평생학습 복지 어울림마당 등의 축제 개최·참가와 '길거리 교실'사업을 통해 가치의 공유를 실현하고 있으며[7] 학습동아리를 통해 개인적 연계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타 공동체와의 연계를 실현하고 있다.

5. 분석 결과 종합

먼저 세 평생학습도시의 비전 및 선언문 내용과 학습도시내의 개별 학습프로그램 분야별 현황을 토대로 세 평생학습도시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진시는 '지역사회 재생형', 수원시는 '이웃공동체 형성형', 안동시는 '학습파트너형'으로 분류되었다. 당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기초·직업교육,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습을 통해 도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수원시는 평생도시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직업교육 보다는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안동시는 기초·직업교육에 가장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총 프로그램 수의 67%)을 개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직업교육 제공에 비중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세 평생학습도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가치의 공유', '개인적 연계', ' 타 공동체와 연계'의 형태인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세 평생학습도시 사례의 분석 결과,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모든 사례에서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의 유형에 따라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평생학습도시의 유형 간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사례별로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모두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평생학습도시 유형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평생학습도시의 유형별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재생형	이웃공동체 형성형	학습파트너형
가치의 공유	·당진시 평생학습한마당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웹진 〈와〉	·행복안동 평생학습 복지 한마당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길거리 교실' 사업
개인적 연계	·학습동아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의 주민총회	·학습동아리 ·'뭐라도 학교' 사업	·학습동아리
타 공동체와의 연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7) '길거리 교실'사업의 내용이 개인이 소유한 사업장을 학습 공간으로써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점차 파편화되고 단절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느끼고 신뢰, 네트워크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고 각 사례의 운영 상태를 토대로 하여 어떠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사례 모두 가치의 공유, 개인적 연계, 타 공동체와의 연계로 정의한 사회적 자본이 모두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중에서 타 공동체와의 연계는 비교적 부족한 모습이 보였는데, 전국적인 규모의 평생학습축제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만이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는 1년 혹은 2년 주기로 개최되어 정기적인 교류이긴 하지만, 그 규모가 크고 공백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보다 작은 규모로 더 잦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작은 규모이기에 참여를 위한 준비에 부담이 적을 것이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잦은 만남을 통해 더 튼튼한 네트워크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는 평생학습도시간의 교환학습 또는 거리상으로 가까운 평생학습도시끼리 개최하는 친선 대회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의 질적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들(예: 이창기·고영상·박경호, 2010)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 지역 애착심 형성, 새로운 지역문화 형성 및 공유 등의 평생학습도시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표준화된 기준에 따른 하향식 선정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배경, 지역 주민의 특성,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역별 평생학습도시의 비전과 사업목적 및 내용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홍성우·김종래, 2013). 이와 더불어 지역 내 공동체 형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타 지역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의 창출·공유할 수 있는 광역적 차원의 관리 방식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면 또는 현장 조사 없이 문헌연구를 통해 진행되어 실질적인 운영상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신뢰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어려워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을 유형화하여 이를 실제 사례 분석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6). 2016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선정-7개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교육부 보도자료, 2016년 06월 13일.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2018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http://www.nile.or.kr/. 2019년 4월 15일 접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글로벌평생교육동향」, 2-3.

김남선·안현숙. (2006). 평생학습도시 관련 변인의 사회자본 영향에 관한 연구: 안동시와 영천시의 사례.「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2): 113-124.

김수병·강창민·양덕순. (2015). 공공조직 사회적자본이 공직윤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한국지방행정학보」, 12(1): 171-187.

김종두. (2011). 평생학습도시 비교 분석.「아시아연구」, 14(2): 217-240.

낙동뉴스. (2019).「안동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 선정」, 황요섭 기자, 2019년 4월 11일.

당진시 평생학습포털. (2019). http://lll.dangjin.go.kr/intros/state. 2019년 5월 15일 접속,

수원시 평생학습관. (2016). 수원시 평생학습포럼 자료집: 시니어는 짐이 아니라 힘.

수원시 평생학습관. (2019). https://learning.suwon.go.kr/. 2019년 5월 15일 접속.

안동시 평생학습원. (2019). https://www.andong.go.kr/edu/main.do. 2019년 5월 15일 접속.

양흥권. (2005). 카케가와시 사례로 본 평생학습도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기능분석 연구.「평생교육학연구」, 11(2): 59-92.

연합뉴스. (2017). 수원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평생학습 큰 성과, 김인유 기자, 2017년 9월 18일.

원종욱. (2012).「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동원·정갑영 외. (2009).「제3의 자본」, 삼성경제연구소, 25-41.

이창기·고영상·박경호. (2010). 평생학습도시 조성정책의 질적 성과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 75-96.

충남방송. (2018).「김홍장 시장, IAEC 세계총회서 발표」, 황백연 기자, 2018년 11월 25일.

통계청. (2017). http://kosis.kr/. 2019년 4월 15일 접속.

평생교육법(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64호).

평생교육진흥원. (2010).「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백서」. 평생교육진흥원.

한상일. (2004).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공동체 참여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한국행정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229-246.

한숭희. (2003).「평생학습도시의 비전: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길」, 부천시청.

홍성우·김종래. (2013).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책연구」, 13(3): 375-401.

Adler, P. S. & Kwon, S. W.(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120.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2019). *IAEC Asia-Pacific Network 2018 Bulletin* (Korean version).

Longworth, Norman. (1999). *Making lifelong learning work: learning cities for a learning century,* London: Kogan Page.

Putnam, Robert.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5),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13-18.

Woolcock, M. J.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151-208

Yarnit, M. (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 London : 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접수일(2019년 07월 29일)
수정일(2019년 08월 19일)
게재확정일(2019년 08월 22일)

〈국문초록〉

평생학습도시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당진시, 수원시, 안동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 형성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제시하고 학습도시별로 어떤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진시, 수원시, 안동시의 평생학습도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학습도시의 비전과 실제 운영프로그램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해당 사례는 평생학습도시의 유형에서 지역사회 재생형(당진시), 이웃공동체 형성형(수원시), 학습파트너형(안동시)으로 각각 분류되었으며, 세 가지 평생학습도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가치의 공유, 개인적 연계, 그리고 타 공동체와의 연계 등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주제어: 평생학습, 평생학습도시, 학습마을, 학습공동체, 사회적 자본